

# 세계 속의 한국경제 길잡이 IGE 보도자료

**IGE**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14. 02. 06

담당자 세계경제연구원

연락처 02-551-3334

[igenet@igenet.com](mailto:igenet@igenet.com)

## 제 목 : “리더십과 정책의 우선순위” 출간



### 리더십과 정책의 우선순위 Leadership & Policy Priorities - 송경진 엮음 -



□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 사공 일)은 『리더십과 정책의 우선순위(송경진 엮음)』 제하의 국·영문 간행물을 출간했음

□ 작년 10월 31일 개최된 동 연구원 개원 20주년 국제 컨퍼런스의 결과보고서인 동 간행물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정치 리더십 변화와 세계경제 질서의 미래
- (2)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 (3) 글로벌 무역의 미래
- (4) 글로벌 금융의 미래

□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의 특별연설: “미국 정부 섯다운 이후의 세계경제”

-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전 IMF 총재는 미국경제가 정상화되고 있어 2개월 이내(2013년 12월 이내)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함
- 그러나 미국의 부진한 노동시장 데이터, 중국의 권력 분권화 조짐, 열기가 식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유럽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책 부재 등을 이유로 글로벌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함
- 아울러 약화된 장기 성장 둔화는 사회불안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혁과 성장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공조의 강화를 촉구하며 G20의 역할 제고를 강조함

## □ 세션 1: 정치 리더십 변화와 세계경제 질서의 미래

- 연사들은 다극성(multipolarity)의 확대, 시대에 뒤쳐진 제도적 관성, 글로벌 문제와 국내 문제의 충돌, 제도의 파편화로 인해 여러 이슈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정체돼 있다고 평가하고, 비(非)위기 시 제도 혁신과 점진주의(incrementalism)를 통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특히 G20 정상들이 G20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고 G20 정상회의를 글로벌 경제, 사회, 정치 문제를 다루는 정상회의체로 차별화할 것을 권고함
- 또한 국제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관련국 간 연계성(interconnectedness)의 본질과 강도를 이해하고 장애물 제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을 제안함

## □ 세션 2: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 데니스 스노워 독일 키엘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불평등의 증가와 결합된 저성장을 최대 장기 글로벌 정책 도전과제로 꼽고,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지속불가능성, 금융시장 지속불가능성, 통화정책 지속불가능성과 성장 지속불가능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에드윈 트루먼 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는 규모와 다양성을 갖춘 미국은 새로운 도전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미국경제의 미래는 낙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지안귀 쉬 북경대 부교수는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현 지도부의 경제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의 현 7.5% 내외의 성장률은 정상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자유무역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부문 투자 촉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행을 위한 과감한 행동(action)을 강조함

## □ 세션 3: 글로벌 무역의 미래

- 연사들은 WTO DDA 협상의 진전 부재로 TPP, RCEP, TTIP 등과 같은 거대 지역협정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다수의 빈곤국을 배제, 소외시킬 위험성이 확대 되므로 무역자유화 이니셔티브를 WTO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함

- 또한 한미 FTA가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많은 부분에서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은 WTO DDA 협상 진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 세션 4: 글로벌 금융의 미래

-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보다 안정되고 효율적인 글로벌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규제 개혁, 금융감독 강화 그리고 시장원리 준수가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글로벌 정책공조와 실물과 금융 간 연계성 강화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을 포함한 실물 부문의 취약성 제어 노력을 강조함
- 연사들은 향후 복수통화 금융시스템에서도 미국 달러의 위상이 유지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연구·분석 및 국제협력과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함